

TV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1

Table listing EBS1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program name, and detail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program name, and details.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program name, and details.

“내 상황에 최적화된 영화 선택”

영화 ‘탐정:더 비기닝’ 강대만 역 권상우

내달 24일 개봉...‘사도’·‘서부전선’과 경쟁

배우 권상우가 둘째 딸을 돌보다가 이석중(내이의 반고리관)에 발생한 이동성 결석으로 유발되는 어지럼증)으로 고생했다는 일화를 털어냈다. 권상우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탐정: 더 비기닝’ 제작보고회에서 “둘째를 돌보다가 같이 잠에 들어가 하는데 예민해 밤을 며칠 새다가 이석중이 걸려 고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상우와 손태영 부부는 올해 1월 둘째 딸을 얻었다. 이어 “그런 일이 생기니 아내가 밤을 새워서 둘째를 돌봤다”며 “이 자리를 통해 아내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상우·성동일 주연의 ‘탐정: 더 비기닝’은 설록 홈스를 꿈꾸지만, 현실은 만화방 주인인 남자(강대만)와, 화려한 전격에도 일개 형사로 좌천된 남자(노태수)가 살인사건의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코믹범죄추리극이다. 이번 영화는 추석 시즌인 다음 달 24일 개봉해 ‘사도’, ‘서부전선’ 등 다른 한국영화 기대작들과 경쟁할 예정이다. ‘동갑내기 과외하기’(2003), ‘청춘만화’(2006) 이후 세 번째로 코믹물에 도전하는 권상우는 “햇수로 4년 만에 영화가 개봉한다”며 “지금 내 상황에 최적화된 시나리오라 선택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권상우는 이번에 두 아이의 아빠인 평범한 가장이면서 철없는 강대만 역을 맡아 유쾌함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모습을 소화한다. 그는 “실제 두 아이의 아버로서 내 나이 또래 배우들 가운데 이 역할을 리얼하게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포화 속으로’(2010) 이후 5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그는 “변화가 좀 필요했던 시기였다”며 “좋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이번 영화에서 망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소개했다. 성동일은 영화에서 파격적인 은발 염색을 하고, 위험천만한 수중 액션을 펼치며 25년 연기 인생에서 최고의 열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만날 임오로만 연기하다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본 적은 처음”이라며 “시나리오를 검토할 때 대사와 보고 지문은 안 보는데 액션이 모두 지문에 담겨 있었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에도 관객 200만명 이상을 동원한 ‘제8회 로맨스’(2010)의 김정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탐정: 더 비기닝’의 시나리오오는 2006년 ‘제8회 막둥이 시나리오 공모전’ 당선작으로, 김 감독이 직접 집필해 588대 1이라는 압도적인 경쟁률을 뚫고 대상을 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구라 이혼 “아내 빛, 끝까지 책임질 것”

“방송인·아버지로서 열심히 살겠다”

방송인 김구라가 결혼 18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김구라는 25일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진 속력 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구라는 “집안의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한동안 잠 많이 싸웠다. 하지만, 낯선 다름이 계속될수록 정말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됐다”며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작년엔 약 3개월간 별거의 시간을 가져보았다”고 털어냈다. 그는 또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감정의 냉정을 찾았고 결국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동선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힘든 상황을 잘 견뎌준 아들 동현이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시한 김구라는 “현재 고2인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생활할 것”이라며 “동현이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동원 임마도 소홀하고 동현이도 언제든지 엄마와 왕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부인의 제무와 관련해서는 그는 “끝까지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며 “방송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김구라는 지난해 SBS TV ‘힐링캠프’에 출연해 “처형이 보증인으로 짐사림을 내세워 빛을 내준 적도 있었다”며 “그 금액이 17억 정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광주MBC, 한국방송대상 2관왕 차지

지역방송진흥부문 이창수 국장

다큐TV부문 ‘시대의 벽을 넘는 여성’

제42회 한국방송대상에서 광주MBC가 2관왕을 차지했다. 광주MBC(대표이사 사장 최영준)는 음악전문 프로그램을 32년간 진행하며 클래식 저변 확대에 기여한 이창수 국장이 지역방송진흥부문을, 광주·대전·충천MBC가 공동제작한 ‘시대의 벽을 넘는 여성’(연출 최선영)이 지역다큐멘터리TV부문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DJ는 1983년 광주MBC에 입사한 이래 ‘살롱음악회’ ‘천재음악가 정음상’ ‘현장음악회’ ‘푸른음악회’ ‘굿모닝FM 이창수입니다’ 등 다양한 음악 전문 프로그램을 제작, 진행해왔다. 현재는 라디오 ‘오후의 발견 이창수입니다’를 맡고 있다. 그동안 한국방송대상 2회, 방송문화진흥회 공익프로그램상, 이달의 PD상 등을 받았다. 지역다큐멘터리TV부문을 수상한 ‘시대의 벽을 넘는 여성’은 한국 근대기에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어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 여성들의 조명된 다큐멘터리다.



특히 광주MBC는 평생 여성교육에 힘썼던 김필레 여사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육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3일 오후 3시 MBC TV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된다. 한편 한국방송대상은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진흥하기 위해 한국방송협회가 1975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6일(음 7월 13일 甲戌). 운세 정보 includ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